

소로 보노
세상



장애인 학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선다!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은혜

04 | 시선집중 - [성명서]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점자표기 및 음성변환용코드 의무화 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06 |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어떻게 한 표의 권리를 선사할까요?

08 | 인터뷰 - 스물셋, 인생을 연주하는 시각장애인 연주자 임희원 씨

10 | 포커스 - 장애인 학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선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먼 바다를 건너와 깨달음을 준 흑인 아저씨 / 박민혁(시각장애 1급_부산광역시 북구)

13 | 월드 리포트 - Royer-Graves School for Blind, 부활절 맞아 달걀 사냥 이벤트 진행 - 5월, 스페인에서 International Blind Tennis Tournament 열려

14 | 뉴스앨범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시련, 업무협약 체결 - 제31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시행 - CJ 올리브영,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 클래스 개최 - 복지카드 무임교통카드, 광주지역에서도 이용 가능!

16 | 후원안내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달이 있어
고마운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달입니다
은혜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은 혜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 일람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 ○●	○● ○●	○● ○●	○● ○●	○● ○●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 어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쓰받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 ○●	○● ○●	○● ○●	○● ○●	○● ○●	○● ○●	○● ○●	○● ○●	○● ○●	○● ○●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어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ㅆ, ㅍ] 다음에 약자 '영'이 올 때는 '영'으로 바뀐다.

[성 명 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점자표기 및 음성변환용코드 의무화 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4월 3일 오후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상비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사용을 위한 점자표기 및 음성변환용 코드 의무화를 위해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13종으로 분류되어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상비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등이 단순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중에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소수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구매하고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점자 표기되는 의약품은 전체 일반의약품(15,781품목)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52품목이고, 이 중 전문의약품 9품목(17.3%), 일반의약품 43품목(82.4%)이며, 안전상비의약품은 4품목(7.7%)이다(2015년 7월)이다.

위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를 표기하고 있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3자의 조력 없이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얻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약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사용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와 정책적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접근하는 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마무리 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어떻게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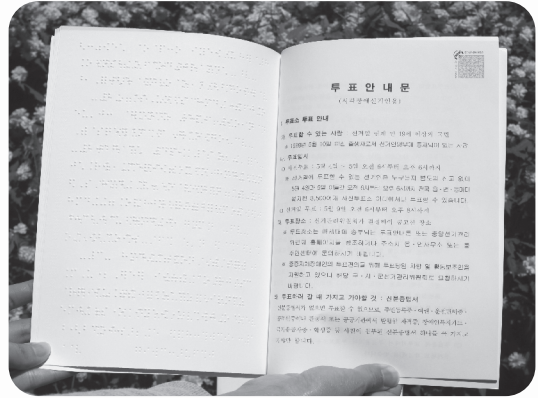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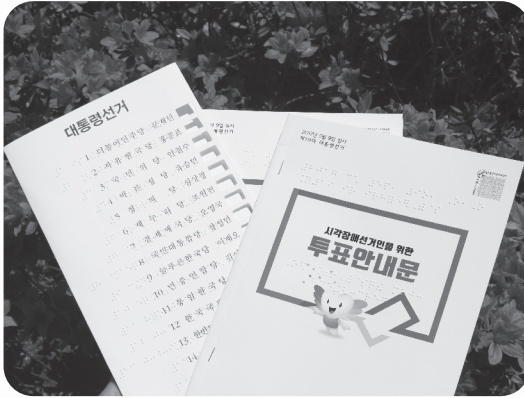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1998. 5. 10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요.

투표에 앞서 우리는 선거 전 자택으로 오는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을 받게 됩니다. 이 공보물에는 각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데요. 이 공보물을 참고하여 한 표를 선사할 사람을 정한 뒤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로 가서 정해진 투표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정해진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어떻게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을 점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선거 공보물은 각 동사무소에서 등록시각장애인의 인원을 파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받아 각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한 뒤 정해진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정확히 투표하기 위해 투표 보조용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보조용구는 투표용지의 크기에 맞게 끼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후보의 기호번호와 정당, 이름이 점자로 적혀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맞도록 구멍이 뚫어져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이 구멍에 맞추어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투표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2015년 점자형 선거공보 배부가 의무화 되었지만 인쇄형과 동일한 매수로 분량이 제한되어 시각장애인들은 전체 정보의 3분의 1만 습득한 채 투표소로 향해야 합니다. QR코드나 보이스아이와 같은 음성변환코드를 삽입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음성변환코드를 삽입하지 않거나 삽입된 음성변환코드가 읽히지 않는 등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선거와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스물셋, 인생을 연주하는 시각장애인 연주자 임희원 씨

EDM(Electronic Dance Music: 댄스음악)에
열광하는 청년들과는 달리 트로트를 사랑하는 청년,
23살의 연주자 임희원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방송과 행사를 넘나들며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23살 연주자입니다.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인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배우 김성환 씨가 부르신 트로트 곡인 '인생'과 '묻지마세요'를 가사에 큰 공감을 하게 되었고, 저도 이렇게 곡을 만들어 대중들과 공감하고, 저의 삶의 행적을 남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음악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특히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EDM과 같은 기계 음악을 좋아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EDM을 들었을 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트로트는 음악에서 생동감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인생을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의 장르로는 트로트가 단연 으뜸이라는 생각이 들어 트로트에 폭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연주하시는 드럼과 색소폰의 매력은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셨나요?
먼저 드럼은 비트를 약하고 강하게 조절하며 신남, 구슬픔, 행복함, 애절함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표현하는 데 딱 들어맞는 악기인거죠.
또 색소폰은 드럼과는 달리 부드러운 선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드럼과는 달리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배우면 배우수록 색소폰의 은은하고 탄탄한 소리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연습은 어떻게,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
지금은 연습실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만의 연습실을 꾸며주셔서 그 안에서 반주기를 쳐두고 드럼과 색소폰 연주를 하곤 합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하루에 3~4시간 정도 악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곧 수원시 영통구에 저만의 연습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보다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외의 많은 뮤지션 혹은 연주자 중 특히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미국의 드러머인 데이브 웨클(Dave Weckl)을 가장 좋아합니다. 데이브 웨클은 어떤 연주를 해도 멋지게 소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곡에 재즈, 발라드, 댄스 등 많은 장르를 담으며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편곡을 하는 드러머로 유명합니다. 데이브 웨클의 이러한 음악 활동이 저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고, 데이브 웨클의 연주를 들으며 저도 악기 연주의 아이디어를 얻곤 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음악 악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은 음악을 귀로 듣고 익혀야 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음악을 익히는 데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악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기 등이 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앞으로 음악연주자 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하고 싶습니다. 제가 트로트를 접하고 그 안에서 인생의 많은 의미를 찾았던 것처럼 저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애인 학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선다!

장애인이 학대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개관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소개합니다.



지난 2월 2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데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중양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중양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인데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개별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양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먼 바다를 건너와 깨달음을 준 흑인 아저씨

박민혁(시각장애 1급_부산광역시 북구)

드디어 2017 한국 프로야구(Korea Baseball Organization:KBO)가 개막하였다. 이 시기에는 KBO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들이 우승을 다짐하고 프로야구 팬들 또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길 원하고 있다. 나는 부산에 살며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한다. 올해는 롯데를 응원한지 딱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쯤에서 나로 하여금 프로야구의 매력을 알게 해 준 한 사람에 대해 추억해 보려고 한다.

2000년대 들어서 롯데는 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악의 성적인 8위를 기록했고 2005년에 5위로 도약하며 희망을 보여주나 싶더니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다시 7위로 추락하고 말았다. 잘 나가던 팀이 이렇게 된 데에는 모기업이 야구단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면서 주축 선수들이 이탈하고 남아있던 선수들이 패배에 익숙해지는가 하면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많은 원인이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게 바로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외국인 감독 선임이었다. 그 인물이 이 글에서 소개할 '제리 로이스터'라는 인물이다. 2007년 시즌이 끝나고 그는 먼 바다를 건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가 본 롯데라는 팀은 이랬다고 한다.

“패기 있게 도전하는 것이 스포츠맨들의 기본자세인데 두려움에 빠져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과 도전보다는 질책이 무서워 전명승부를 펼치기보다 피하려고만 했다.” 로이스터는 다른 무엇보다 이 점을 먼저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두려워 하지마라 자신을 믿고 플레이해라.”, “나보다 중요한 것이 팀이다. 팀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야구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팀과 팬들을 보살필 자격이 없다.”

위에서 말한 주문에 더하여 로이스터는 칭찬에 능한 사람이었다. 선수들이 취한 행동 하나하나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칭찬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너무나 부진하던 선수가 몰라볼 정도로 성적이 좋아져서 기자가 로이스터 감독에게 “어떻게 지도했는가?”라고 묻자 그는 “자신이 문제점을 찾아 해결한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도자는 아랫사람이 잘 했을 때 그 공적은 지도자 자신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잘 한 사람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감독의 노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롯데를 4강에 진입하게 만들었고,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거스 히딩크 감독의 영향력을 닮았다고 하여 다수의 롯데 팬들은 ‘부산의 거스 히딩크’ 또는 ‘야구 히딩크 매직’이나 ‘로이스터 매직’이라 칭하며 그를 칭찬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다. 바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되면 무기력한 경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준플레이오프에서 말이다. 2008년에는 3연패를 당하고 2009년에는 1승을 하여 희망을 안겨주는가 싶더니 3연패를 당해 다음을 기약하게 했다. 2010년에는 2승을 먼저 하면서 이번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후에 3연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팬을 향한 사랑과 선수를 배려하는 태도에 감동받은 팬들은 기금을 마련하여 신문에 로이스터 감독 연임지지 광고를 내기도 하였는데 구단은 3년 동안 준플레이오프에만 진출하고 포스트시즌을 마감한 책임을 물어 그를 해임하였다.

2010년을 끝으로 로이스터는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영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로이스터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마지막으로 살면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될 순간이 있을텐데 이 때 아랫사람의 공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는 오늘부터 작은 부분부터 실천에 옮겨보려 한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 과감하게 도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나중 일이긴 하지만 나보다 아랫사람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에는 칭찬해주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공적을 절대 내 것이라 말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생각하고 작은 부분부터 실천에 옮긴다면 내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Royer-Graves School for Blind

부활절 맞아 달걀 사냥 이벤트 진행

미국의 맹학교인 Royer-Graves School for Blind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학생들과 함께 달걀을 수집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17년 부활절에도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은 캠퍼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달걀을 찾았는데요, 캠퍼스 곳곳에 위치한 달걀은 시각장애인이 찾을 수 있도록 신호음을 냅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서로 빠르게 많은 달걀을 찾으며 상금을 획득하기 위한 이벤트를 즐겼으며, 달걀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5월,

스페인에서 International Blind Tennis Tournament 열려

국제시각장애인테니스협회(IBTA)의 주최로 스페인 에서 국제 시각장애인 테니스 토너먼트(International Blind Tennis Tournament)가 열렸습니다.

스페인의 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Alfaz del Pi의 Pau Gasol Sports Pavilion에서 열린 이번 경기는 5월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11일 폐막까지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14개국 7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각자의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소리 나는 공을 사용해 치는 시각장애인들의 테니스 경기가 이번 국제대회를 시작으로 점차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시련, 업무협약 체결

지난 4월 13일, 서울LW컨벤션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KAIT와 한시련이 시각장애인 전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양질의 강사 양성과 ‘찾아가는 방송통신 교실’ 운영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합리적이고 유익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문승 KAIT 이용자보호실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시각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청각 교육은 사회적 자립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금번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 교육 콘텐츠 보급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1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시행

지난 4월 22일 서울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제31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제판기, 타자기, 컴퓨터, 점자프린터기 등을 이용해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사람인데요.

국어, 영어, 수과컴(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총 4개 과목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에는 총 221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5월 11일 2시에 발표되었으며, 합격자들은 공인된 자격을 취득하여 점역·교정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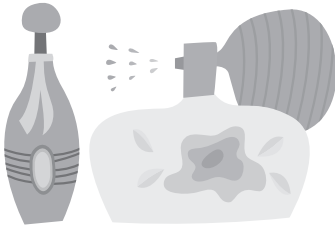


CJ 올리브영,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 클래스 개최

지난 4월 19일,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CJ 인재원에서 CJ 올리브네트웍스의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의 주최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준석) 이용자 30명과 CJ 올리브영 임직원 30명이 1대 1로 짝을 이뤄 진행되었으며, 조향 전문교육기관 센토리가 교육을 담당했는데요. 클래스에서는 향의 이해 및 조향의 세계를 주제로 한 조향사 강의를 시작으로 시각장애인들이 CJ 올리브영 봉사단과 함께 자신만의 추억과 이야기를 담은 향을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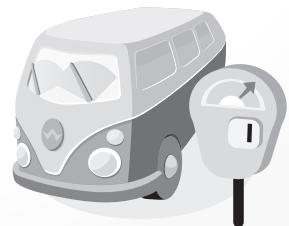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하성준 사무국장은 “올리브영과 함께 향기로운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활동이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복지카드 무임교통카드, 광주지역에서도 이용 가능!

2016년 11월부터 광주지역의 장애인들도 복지카드 무임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하철 탑승 시 복지카드를 통해 신분 확인을 받은 후 지하철 1회용 무임권을 발급 받아야 했었는데요. 2016년 7월 광주광역시와 (주)신한카드가 ‘무임 교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승차권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6만 8천여명은 무임 교통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장애인 복지카드(신한카드) 중 본인이 희망하는 카드로 발급하여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의 손길

개인기부자 이*원, 김*우, 김*영, 김*호, 송*애, 김*호, 남*호, 김*화, 윤*지, 윤*지, 김*경, 강*린, 송*옥, 강*은, 복*분, 이*름, 김*옥, 조*경, 권*석, 이*옥, 류*길, 조*묵, 강*성, 김*식, 최*열, 최*식, 민*용, 양*태, 서*범, 김*진, 이*득, 양*현, 유*환, 박*춘, 이*민, 김*섭, 한*명, 이*록, 조*호, 김*훈, 장*길, 고*현, 김*경, 노*진, 이*영, 황보*광, 이*화, 조*희, 한*영, 이*택, 최*범, 최*애, 이*빈, 손*린, 김*수, 이*국, 이*만, 이*국, 이*천, 채*정, 이*비, 김*영, 차*우, 남*영, 김*옥, 남*현, 홍*길, 홍*순, 홍*주, 김*원, 김*슬, 마*민, 이*원, 박*옥, 이*지, 안*슬, 임*우, 임*준, 이*지, 박*형, 박*재, 박*정, 이*주, 전*구, 윤*정, 황*준, 황*, 고*영, 박*빈, 박*결, 박*서, 박*울, 김*형, 신*진, 진*인, 박*래, 김*우, 박*순, 정*홍, 김*수, 유*식, 복*주, 남*학, 왕*택, 고*철, 황*기, 손*섭, 하*식, 강*민, 임*운, 윤*채, 김*형, 김*배, 이*우, 권*섭, 김*성, 진*구, 이*우, 정*현, 김*원, 심*봉, 주*식, 염*희, 최*영, 김*자, 한*숙, 주*호, 주*무, 주*호, 김*미, 홍*수, 김*현, 김*례, 손*진, 송*림, 김*춘, 노*택, 노*영, 김*정, 이*희, 이*용, 손*근, 손*경, 최*탁, 윤*현, 황*화, 윤*자, 김*희, 신*섭, 복*규, 김*, 이*민, 신*규, 박*철, 최*옥, 이*호, 이*원, 이*인, 이*례, 채*란, 박*수, 박*열, 박*덕, 구*숙, 이*영, 이*혜, 정*운, 김*란, 주*건, 조*경, 이*희, 홍*혁, 이*규, 김*숙, 김*준, 한*자, 권*영, 박*호, 김*름, 김*수, 김*현, 김*진, 이*진, 김*현, 박*수, 이*훈, 이*옥, 박*희, 박*진, 박*진, 유*근, 김*현, 홍*녀, 김*준, 허*애, 이*숙, 오*환, 오*석, 오*철, 강*애, 김*형, 채*석, 김*태, 이*희, 이*민, 손*숙, 박*영, 유*하, 송*정, 박*용, 정*나, 심*미, 허*라, 한*수, 임*정, 정*준, 이*, 임*억, 박*연, 박*희, 최*기, 황*운, 정*숙, 김*식, 신*호, 현*환, 현*언, 윤*선, 김*옥, 김*길, 김*택, 박*석, 이*아, 주*식, 김*규, 김*완, 박*영, 허*진, 노*향, 이*진, 박*현, 김*수, 정*화, 이*식, 황*정, 류*택, 강*창, 김*옥, 박*석, 박*재, 조*길, 김*택, 김*, 유*숙, 신*경, 심*근, 홍*현, 김*순, 김*길, 박*희, 전*복, 이*혁, 신*호, 강*현, 공*주, 이*희, 이*진, 이*희, 강*훈, 박*석, 진*은, 이*우, 유*수, 엄*식, 이*근, 전*녹, 장*석, 이*희, 조*진, 차*국, 김*민, 김*현, 왕*택, 백*, 정*은, 최*비, 손*은, 조*숙, 함*만, 신*옥, 김*남, 김*래, 이*순, 김*언, 신*천, 김*래, 신*섭, 이*순, 박*자

단체기부자 한시련 중랑지회, SK네트웍스, 한국엠디, 휴플라워, 뉴욕치과의원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 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신한은행100-030-501953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